

기아차노조 '억지 야근' 고통 분담은 남의 일?

사측 "일감도 없는데" 휴무 협의 요청에 노조 거절

기아차 광주공장 근로자 1천명이 지난 1월 5일부터 25일간 야간에 출근해 일한 하지 않은 채 야근수당을 챙겨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기아차는 수출부진과 내수부진으로 인해 지난 2007년 월평균 생산대수가 2만3천여대에서 2008년 2만6천여대, 지난 1월에는 1만3천여대로 50% 넘게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SUV시장의 몰락으로 인해 스포티지 생산을 하고 있는 2공장은 상황이 더 심각해 지난 1월 5일부터 야간에는 아예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기아차가 이렇듯 야간 가동 중단이라는 극한의 대책까지 내놓으며 감산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여전히 되살아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국내외 자동차 시장의 극심한 불황 때문이다. 하지만 야간에 생산라인이 멈춰 있

음에도 근로자들이 출근해 일한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평소와 같은 임금을 받고 있다.

사측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키 위해 지난 2월 초 공문을 통해 노조에 정규시간 비가동 휴무 시행을 위한 노사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는 연간 사업계획조차 없는 현 시점에서 휴무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작업, 특근수당을 받지 못하는데 심야수당(10% 삭감)까지 받지 못하게 되면 임금의 30% 정도가 삭감되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간부는 "회사에서 야간 휴무에 대한 노사협의를 요청이 있었으나 휴무가 끝나고 난 후 대책도 없고, 이후 전망도 없어 무작정 휴무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회사가 정상화될 때를 대비해 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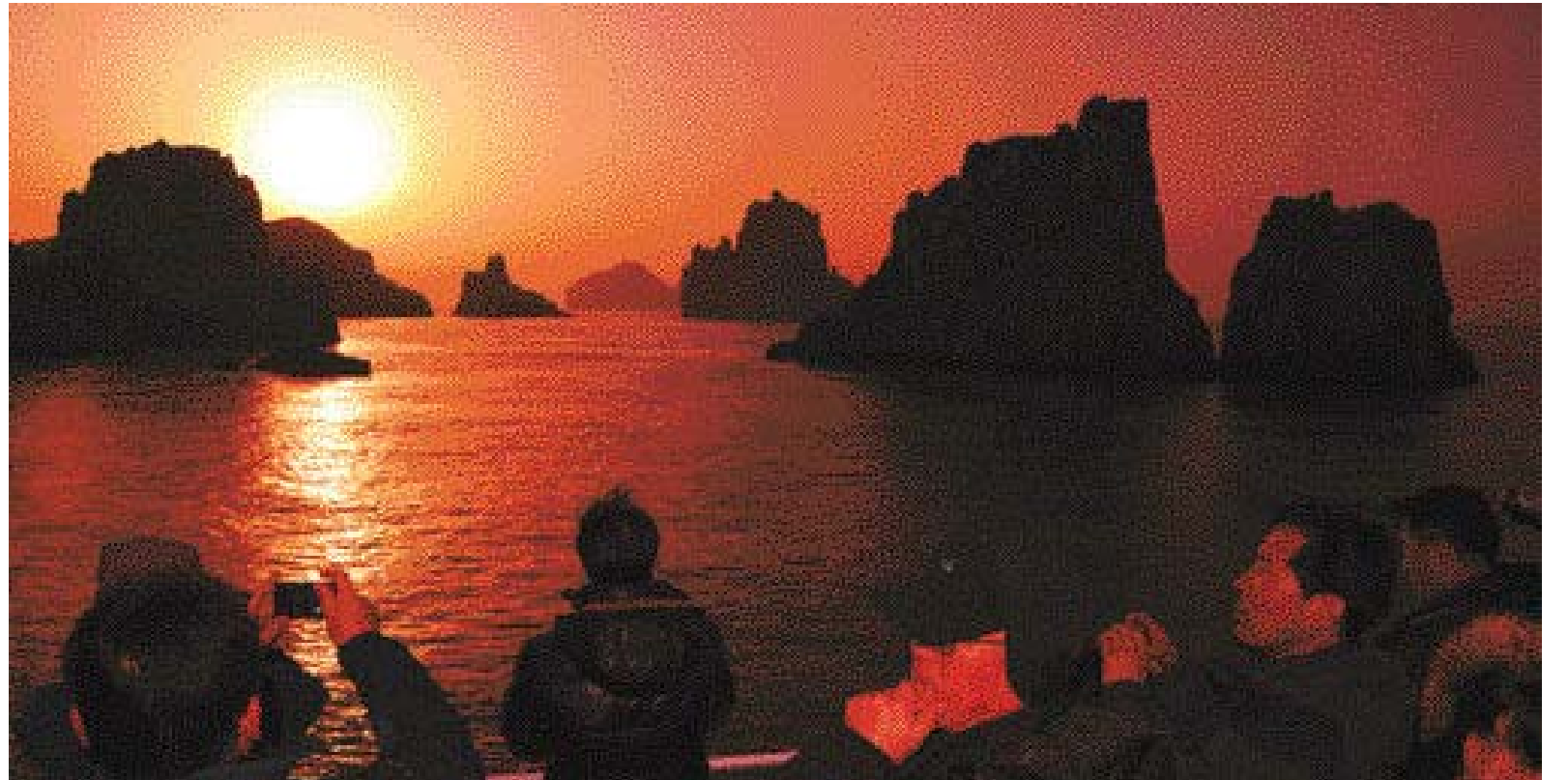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휴무기간동안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장기적 전망을 만들어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야간 휴무를 시행해도 근로자는 주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므로 큰 폭의 손실이 없으며 회사는 정상가동 시 지급하던 야간수당 및 심야수당, 전기료, 식대, 통근버스 임차료 등 각종 고정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기아차 광주공장은 쏘울 및 뉴가렌스를 생산하는 1공장, 스포티지를 생산하는 2공장, 봉고트럭 및 대형버스, 군수 차량을 생산하는 3공장이 있다.

1공장은 주간 10시간, 야간 8시간, 3공장은 봉고트럭이 주야 8시간씩, 대형버스는 주간만 8시간, 군수차량은 주간만 10시간 가동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백도 일출 "원더풀!"

불황과 환율 급등으로 관광객들이 국내 여행지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마련한 '거문도·백도 테마여행'에 참가한 관광객들이 12일 오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백도 앞바다 선상에서 백도의 비경과 일출을 감상하고 있다. /위지람기자 jrvi@kwangju.co.kr

앤디 워홀·리히텐슈타인 200억대 명작 광주 온다

광주신세계갤러리 4월 13~23일 전시

세계적인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Andy Warhol·1928~1987)과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1923~1997)의 200억여 원대 명작을 선보이는 블록버스터 전시가 오는 4월 광주에서 열린다.

지난해 열린 광주시립미술관 소장품전 등을 통해 앤디 워홀의 판화 작품이 광주에서 소개되기는 했지만 팝아트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의 작품이 대거 전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오는 4월 13일~23일까지 '앤디 워홀·리히텐슈타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신세계갤러리 측이 오는 3월 신세계백화점 부산 센텀시티점 개장에 맞춰 기획한 전국 순회전시로 두 사람의 대표작 40여 점을 선보이는 대형 기획이다.

신세계갤러리 관계자는 "국내에 잘 알려져 있는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은 전시 목록에 빠져있지만 이들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을 모두 모았다"면서 "국내의 컬렉터들의 소장품을 한 자리에 모으다 보니 전시 작품 목록을 사전 공개할 수 없지만 지역에서는 흔치 않은 최고를 전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앤디 워홀 작 '마릴린 먼로'

한편 미국 출신인 앤디 워홀은 예술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뜨린 팝아트의 가장 빛나는 스타로 실 크스크린 기법을 활용한 '마릴린 먼로' '모택동' 등의 작품을 통해 명성을 얻은 예술가다.

리히텐슈타인은 광고, 만화, 신문, 잡지에서 빼낸 이미지를 변형해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만든 작가이다.

두 사람은 국제미술시장 분석기관이 해마다 발표하는 '비싼 작가 톱10'에 항상 이름을 올려놓을 정도로 국내외 미술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송정역'

20일부터 새 명칭

광주 광산구 '송정리역'의 이름이 오는 20일 '광주송정역'으로 변경된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호남선 '송정리역'의 이름을 '광주송정역'으로 바꾸기로 결정, 이를 관보에 게재해 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늦어도 오는 20일께 송정리 역명 변경건이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지난 1913년 10월1일 호남선 개통 당시 역사(驛舍)가 있었던 전남 광산군 송정리의 이름을 따서 지은 '송정리역'은 9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송정리역은 광주의 요충지에 있으면서도 '광주'라는 지명이 들어있지 않아 외지인들에게 혼선을 초래, 주민들 사이에 역명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광주시는 지난해 광산구가 여론조사에서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된 '광주 송정역'으로 역명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해오며 따라 정부에 역명 변경의견을 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완전 면제

취·등록세 감면 적용 시한 1년 연장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지역을 지방 미분양 주택 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까지 포함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양도세 감면폭과 관련, 당정은 인천·경기지역은 양도세 50%를, 지방은 완전히 면제하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혜택 적용 시한이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되고 대상이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6월 마련한 '지방 미분양주택 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 거래세 감면 적용시한을 내년 6월 말로 1년 연장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행안부는 또 미분양주택 거래세 감면혜택 적용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거래세 감면 적용시한 연장에 따라 이날 현재 미분양 상태인 전국의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맺어 내년 6월

까지 등기를 마치면 1%씩인 취·등록세가 50% 감면돼 각각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취·등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도 0.2%에서 0.1%로 50% 감면되고, 농어촌특별세는 0.5%에서 0.05%로 낮아진다.

이 같은 감면 혜택은 대책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6월11일 현재 미분양된 주택을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 내년 6월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감면혜택이 적용되면 전용면적 99㎡(30평)인 미분양주택을 2억4천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총세액이 648만원에서 276만원으로 372만원 줄게 된다. /연합수



START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2009년 3월 1일(토) 오전 9:00
광주송정종합경기장 및 영선동 일출(광주~남양주)

대회특이사항

| | |
|-------|--|
| 1. 대회 | 광주(광주송정종합경기장)~남양주(남양주종합운동장) 구간을 주경기장으로 활용한다. |
| 2. 대회 | 광주(광주송정종합경기장)~남양주(남양주종합운동장) 구간을 주경기장으로 활용한다. |
| 3. 대회 | 광주(광주송정종합경기장)~남양주(남양주종합운동장) 구간을 주경기장으로 활용한다. |
| 4. 대회 | 광주(광주송정종합경기장)~남양주(남양주종합운동장) 구간을 주경기장으로 활용한다. |
| 5. 대회 | 광주(광주송정종합경기장)~남양주(남양주종합운동장) 구간을 주경기장으로 활용한다. |

문의: 062-2200-5000 (광주) / 031-820-1111 (남양주)